

“수재민 아픔 생각하면 힘들어도 큰 보람”

육군55사단,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마스크·발열 체크·거리 두기 철저히
뒹구는 농기구·산더미 폐기물 ‘처참’
작업·휴식 반복하며 묵묵히 땀방울

19일 한낮 기온이 34도에 달했던 경기도 이천시 울면 산양1리 일대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55사단 이천대대 장병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곳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양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비닐하우스 전체가 물에 잠기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흙투성이로 이곳저곳에 나뒹구는 농기구와 산처럼 쌓여있는 폐기물이 그날의 처참함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40여 명의 장병이 폐비닐과 철근 등을 나르고 또 날랐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혀 오는 날씨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한 장병들은 호흡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묵묵히 피해복구에 매진하는 장병들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피해복구는 장병들의 탈진 등 온열 손상 방지를 위해 20분 작업 이후 10분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병들은 휴식 시간에도 잠시 수분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았다. 또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한 가운데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휴식은 짧고, 작업은 고됐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봉사에 나선 장병들의 얼굴엔 보람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환경구상병은 “덥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이전 지역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쁘다”며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이런 장병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이가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해야 하는 백성식(64) 씨였다. 백씨는 “처음 수해를 입었을 때는 그저 막막하기만



육군55사단 이천대대 장병들이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이천시 울면 산양1리 일대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뼈대를 정리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했다”며 “이렇게 무더운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무겁고 지저분한 폐자재를 나르며 따뜻한 위로까지 건네는 장병들에게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우리 군의 피해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군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55사단은 사단장 주관으로 진행하는 일일 대민지원 상황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조 사항을 예하 전 부대에 전파하고 있다. 이천대대를 비롯한 각 부대는 대민지원 투입 전 장병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복구 현장에는 손소독제가 상시 비치되고, 휴식 시간에는 장병 상호 간 ‘거리 두기’가 지켜진다. 장병들의 이동 및 복귀는 부대 버스를 활용하고, 식사 역시 별도의 차단된 장소를 마련해 주민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대민지원을 마친 장병들이 부대로 복귀하면 다시 한 번 발열 체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온수 샤워 등 충분한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민지원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단 및 연대 군의관의 순회진료 및 개별 진료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이천 일대 대민지원 현장에서 장병들을 이끌며 직접 피해복구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김동훈(중령) 이천대대장은

19일 수해복구 대민지원 현황 10:00 기준, 국방부 제공

육군	127개 부대 5499명	세탁트레일러, 드론 등 314대
해군·해병대	2개 부대 643명	굴삭기, 집게차 등 20대
공군	6개 부대 146명	헬기, 굴삭기 등 9대

은 “무더위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들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이천대대 전 장병은 지역방위사단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사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개인 방역수칙 준수 절대적 필요...외부인 통제 강화”

정경두 장관, 코로나19 예방 특별지시
군인가족 의한 감염 차단 대책도 주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장병들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시행된 ‘전 부대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 따른 부대 관리 지침 속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과 여름 휴가로 인해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부 강사, 민간 종교시설 참석 등 민간인 접촉에 의해 장병들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부대를 출입하는 전 외부인(고정 출입자 포함)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름 휴가자

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과 복귀 후 행동수칙 준수도 철저히 하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병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와 ‘장병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군 내 감염 통로로 지목된 외부인의 통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간 강사의 부대출입과 교육 전·중·후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조리원 등 외부 상시 출입자는 군 통제지침 준수 교육을 하고, 공사 관계자 등 기타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정된 장소만 출입해야 한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군인가족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면서 “군인가족들에게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교육하고, 이들 역시 군 통제지침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 편집=박재운 기자